

# 괴물은 살아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선발 투수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이날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6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을 7.36에서 2.79로 푼 떨어뜨렸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4-0으로 완승하며 시즌 첫 승리투수가 됐다. /연합뉴스

## 다저스 류현진 시즌 두번째 등판서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첫 승...타석에선 볼넷·안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첫 등판에서의 부진을 씻어내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역투를 펼쳤다. 류현진은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서 시즌 두번째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하나씩만 내주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90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다저스가 4-0으로 앞선 6회말 무사 1-2루 타석에서 대타 쪽 피더슨으로 교체됐다. 다저스가 4-0으로 이겨 류현진은 시즌 첫 승리를 수확했다. 5회 2사 이후 스티븐 피스코티의 중전안타가 이날 오클랜드의 첫 안타였을 만큼 류현진의 투구는 위력적이었다. 류현진이 날카로운 컷 패스트볼(커터)

을 앞세워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제구력까지 되찾으면서 상대 방망이가 헛돌았다. 구속은 MLB닷컴 기준으로 시속 91.9마일(약 148km)까지 나왔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볼넷과 안타로 멀티 출루를 하며 활약했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즌 첫 등판에서 3.2이닝 5피안

타 3실점으로 부진한 뒤 선발진 잔류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게다가 등판 일정이 두 차례나 변경되는 '5선발의 비애'를 겪은 뒤에야 시즌 처음 홈경기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날 호투로 반등의 발판을 놓았다. 류현진은 1회 볼넷 하나를 허용했지만 루킹 삼진 두 개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제드 라우리를 3구 만에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크리스 데이비스도 4구째 바깥쪽에 꽂힌 커터로 루킹 삼진으로 처리했다.

다저스 크리스 테일러와 코리 시거의 솔로 홈런으로 2-0으로 앞선 2회초 류현진은 멧 올슨에 낙차 큰 커브를 던져 세 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했다. 3회에도 류현진의 '삼진 쇼'가 이어졌다. 첫 타자 제이크 스톨린스키를 3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고, 마나야를 2루수 망블로 처리한 뒤 세미언에게 다시 헛방망이질을 유도했다. 류현진은 4회 상대 중심타선을 삼자범퇴로 요리했다. 4번 타자 데이비스는 두 타석 연속 루킹 삼진을 당했다.

류현진은 5회 2사 후 피스코티에게 중전안타를 맞아 이날 첫 피안타를 기록했다. 6회에도 대타 트레이시 톰슨과 세이먼을 잇달아 삼진으로 돌려보내는 등 다시 세 타자만 상대하고 덕아웃으로 돌아갔다. 한편 2회말 2사 후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한 류현진은 4회말 2사 1루에서 깔끔한 좌전 안타를 쳐 지난해 8월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 이후 229일 만에 안타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 탄탄해진 KIA 마운드 비결은 '커브'

한승혁 155km~116km 넘나들며 타자들 타이밍 뺏어...박정수·임창용·정용운·문경찬도 호투



탄탄해진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는 '느림'이 있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KIA 마운드의 움직임은 경쾌하다. 지난 시즌 '삿발' 임창용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한승혁이라는 '깜짝 카드'가 선발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시즌 마운드 역할을 해왔던 박진태의 입대로 인한 사이드암 공백은 '에비역' 박정수가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사연 많았던 불펜에서는 '만행' 임창용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에서 나란히 출격했다. 팀이 3-4로 아쉽게 패했지만 이들은 깊은 인상을 남기는 피칭을 했다. 2677일 만에 선발로 나온 한승혁은 89개의 공으로 5.2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박수를 받았다. 호잉에게 두 개의 홈런을 내준 게 아쉬웠지만, 볼넷을 두 개로 묶는 등 달란진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보다 알짜 마운드에 투입되고 있는 임창용은 이날도 1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0의 행진'을 이어갔다. 무사 만루에 투입된 박정수는 연속 삼진에 이어 포수 망블로 베이스를 가득 채운 주자들의 발은 묶었다. 세 사람의 올 시즌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커브'다. 커브는 가장 느린 변화구 중 하나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한승혁은 올 시즌 커브를 빼 들었다. 2016 마무리캠프에서부터 커브를 준비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실전에서 던져보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첫 등판부터 커브를

선보이면서 상대 타자들의 리듬을 뺏았다. 10일 한승혁이 기록한 직구 최고 구속은 155km 여기에 116km의 커브를 던지면서 구속 차는 무려 40km 가량 났다. 포크와 슬라이더에 더 느린 커브가 추가되면서 타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리그를 대표하는 파이어볼러 한승혁은 스피드만으로는 매년 더 강해지는 타자들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느림'을 선택했다. 반대로 느림을 통해 강속구가 더 두드러지는 효과도 있다. '뺨 직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24년 차 베테랑 임창용도 커브를 묶어 힘 있는 타자들과 타이밍 싸움을 하고 있다. 임창용은 지난 스프링캠프에서 커브에 공을 들였다. '3할 군단' 팀 후배 타자들의 감탄사를 이끌어 낼 정도로 커브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리고 임창용은 올 시즌 커브 비율을 높여 마운드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박정수의 주무기 역시 커브다. 직구(36%)보다 커브(54%) 비율이 더 높다. 타고난 손가락 감각을 바탕으로 회전과 각을 키우는 커브가 일품이다. 공이 우타자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커브를 바탕으로 배정 있는 승부를 하면서 박정수는 불펜진에서 가장 많은 이닝(10일 현재 13.2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느림에 느림을 더한 정용운과 문경찬도 있다. 좌완 정용운은 100km 초반대, 문경찬은 KIA에서 가장 느린 90km대의 '슬로 커브'를 구사한다. 매년 타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파워까지 업그레이드되면서 투수들은 생존을 위한 연구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 시즌 KIA 마운드에는 '커브'가 화두가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4일 오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한승혁이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바르샤·맨시티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좌절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는 맨체스터 시티가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기록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바르셀로나는 11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에서 다니엘레 데 로시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운 AS 로마(이탈리아)에 0-3으로 무릎을 꿇었다. 안방 1차전에서 4-1 대승을 누웠던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4-4가 됐지

만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4강 진출이 좌절됐다. UEFA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에 빛나는 바르셀로나는 2년 연속 4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로마는 UEFA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유러피언컵 시절이던 1983-1984시즌 이후 무려 34년 만에 준결승에 올랐다.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던 리버풀은 1, 2차전 합계 5-1 승리로 4강에 합류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앞둔 맨체스터 시티는 8강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 '전남 1000호골' 주인공을 맞춰라

구단 SNS 댓글 이벤트



팀 통산 1000호골을 앞둔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1000호골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은 구단 페이스북(www.facebook.com/dragonsfc) 댓글을 통해 '팀 통산 1000호골의 주인공을 맞춰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1000호골의 주인공이 이벤트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21명을 선정, 득점 선수의 실적 축구화 및 유니폼, 친필 사인볼, 머플러 등을 증정한다. 또 선수와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남은 팀 통산 1000호골에 3골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최재현이 동점골을 터트리면서 팀 통산 997호골이 기록됐다. 전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또는 14일 오후 4시 예정된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1000호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 러 월드컵 '관중 AD카드' 있어야 입장 가능

FIFA 홈페이지 팬 ID 신청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관중도 해당 경기 티켓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AD(Accreditation) 카드가 있어야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 14일 개막하는 월드컵 기간에 '팬(fan) ID'로 불리는 '관중 신분증' 제도를 운용한다. 경기를 보려는 관중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인적 사항이 기재된 AD 카드를 제시해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팬 ID'는 경기장 입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입국 때 비자를 대신하는 역할도 한다. 또 경기가 열리는 도시로 이동할 때 이 팬 ID를 제시하면 열차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은 국제축구연맹(FIFA) 티켓 구매 사이트(www.fifa.com/worldcup/organisation/ticketing)에 팬 ID를 신청해야 한다. 티켓 구매자는 국내에서 팬 ID를 수령한 후 러시아 입국 때 제시해



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관중도 여권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관중에게도 AD 카드를 발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